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현대인들은 출근길에 인터넷 뉴스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주제별로 모아 놓으니 이곳에서 골라 보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학교도 이렇게 일찍 안 갔다'라는 인터넷 뉴스에 눈길이 쏠린다. 우리가 별다방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제법 근사한 상품이 나오는 날이란다. 커피 300잔을 130만 원을 내고 먹으면 받을 수 있는 여행 가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커피는 한 잔만 마시더니 그 돈을 다 지불하고 가방을 받아 갔다는 내용이 나온다.

무엇이 슬한 사람들을 별다방에 매달리게 하는가? 그 비밀은 이야기다. 이곳에 가면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똑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매장이 넓어서 쾌적하며, 응용소프트웨어를 깔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마케팅에서 말하는 이른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다. '스토리의 과학'의 저자 킨드라 홀은 "스토리가 있으면 저항

천년 음식을 만드는 스토리텔링

이 사라지고, 음식을 먹어 보지 않고도 그 음식점에 가고 싶어지며, 밥새를 맡아 보지 않아도 그 향수가 사고 싶어지고,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제품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한다.

기업에서도 생산하는 제품에 스토리를 입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지갑을 열게 한다. 스토리텔링은 제품뿐만 아니라 음식 분야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천년을 살아 내려온 요리도 있으니 다름 아닌 동파육(東坡肉)이다.

소식(蘇軾)은 중국 북송대의 문인이자 철학자로서 우리에게서는 소동파(蘇東坡)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소식은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기나긴 시간 유배생활을 하게 되는데, 후베이성 황주(黃州)에 단련부사라는 보잘것없는 직책으로 좌천되어 5년간 머무르게 된다.

그의 시를 보면 황주에서의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특히 황주로 온 지 2년 동안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소식은 "마정경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 군에 청하여 땅 몇 마지기를 얻어 주어 농사를 지내면서 근근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이 너무 황폐해지고 가시덤불이 많은 데다 가뭄까지 들어 밭을 가는 데도 기진맥진했다"고 썼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했던가. 황주의 생활은 힘들었다. 한데 소식이 사는 집 동쪽에 언덕이 있었다. 그레

서 소식은 동쪽 언덕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하여 동벽 '동(東) 자에 언덕 '파(坡) 자를 써서 '동파거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황주에 머물면서 돼지고기 요리를 자주해 먹던 소동파는 급기야 돼지고기를 칭송하는 '저 육송'(猪肉頌)이라는 시를 남겼다. 제목은 돼지고기를 찬미하는 노래이지만 실제로는 동파육을 만드는 방법도 적혀 있다. "황주에는 맛난 돼지고기가 똥값이네./ 부자들은 천한 요리라고 안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요리 방법을 몰라서 못 먹네/ 물을 조금만 넣고 약한 불에 문근히 삶아 주면 저절로 익으니/ 매일 아침 일어나 두어 덩어리 먹으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네"

소동파는 대단한 미식가였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채소, 과일, 과일 가공품, 수산물, 차, 술 등을 시의 주재로 삼았다. 그의 시를 보면 매일매일 성대한 연회를 즐겼을 것만 같다. 그는 밀주를 만들면서 '밀주가'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그가 만든 술맛은 어땠을까? '북산주경'이라는 술에 관한 저술을 남길 정도였으니 모두 기대를 했지만, 그가 만든 밀주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설사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스토리텔링에는 정해진 캐릭터가 존재해야 한다. 캐릭터의 나이·직업·외모 그리고 그의 철학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소동파는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으로 삼기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그것이 동파육(東坡肉)이 천년을 살아 쉬 쉬는 이유다.

종교칼럼



김원영  
광주원음방송 교무

서재필 선생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조국을 위해 힘썼던 월남 이상재(1850-1927) 선생이 일제의 조선 지도자 산업 시절 계획에 따라 일본의 여러 군수공장과 산업시설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날 저녁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연회를 베풀고 산업 시절의 소감을 물었다. 이상재 선생의 차례가 되자 선생은 일본의 군수산업의 발전상과 그 규모의 대단함에 놀라움을 솔직히 말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성경 말씀에 '칼로써 일어난 자는 칼로써 망한다' 했는데 일본의 장래가 걱정이 된다, 하고 말했다.

이상재 선생의 경고는 얼마 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구소련과 미국의 최신 무기 기술은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에서 유감없이 그 실력을 발휘하더니 아프간 전쟁에서도 위용을 자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돌연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에 놀라움을 가지면서도 자꾸만 이상재 선생이 인용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 미국이 망하게 될 것이라든가 망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강대국의 힘이 남용됨으로써 자칫 더 큰

강약의 진화(進化)

제약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테러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것처럼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그 동기가 어떻든 지탄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막강한 일본에 저항하는 길은 일본에게 지명타를 줄 수 있는 인물이나 장소를 공격의 목표로 삼아 가격하는 일이었다. 절대적 힘에 저항하는 길은 이렇게 의외의 공격 방법을 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평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또는 테러를 위해 응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세계 지배 전략이 약소국의 원한을 사는 일이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마다 소중하게 아는 것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생명을 포기할 때는 그 일에 대한 그만한 가치와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물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강한 신념을 갖기까지는 적개심과 분노가 쌓일 때로 쌓이는 것이다. 옛말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자식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대하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지푸라기 보듯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고 하였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만한 최강대국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극단적 저항을 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 고마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환경 문제나 무기 개발에 있어서나 세계 경제 문제에 있어서나 인류 공영의 길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약소국을 억누르고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천미정권을 세우고 종속시키는 지배 전략을 계속 확대해 간다면 이는 세계의 불행일 뿐 아니라 인류의 불행이 될 것이다. 또한 약소국의 입장에서라도 무조건적 저항만으로는 강대국을 길들일 수 없으며 반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보복은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일 따름임을 알아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대영제국의 무력을 이겨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겨낸 역사적 사실이다. 베트남의 탁남한 스님이나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의 정신적 힘이 세계를 움직이는 더 큰 힘을 알아야 한다. 원불교 대중사님은 "세상은 강자가 강을 베풀 때 자기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자리이다 법을 써서 약자를 이끌어 주고 배우기에 힘써서 자력을 세워나가는 길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발전하는 길이"고 평화를 만드는 길이며,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라"고 했다. 우리는 전쟁과 다툼, 그리고 이념 대립을 통해 역사적으로 많이 보고 배워 온 민족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흑이나 부정당한 강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또는 약자로서 부정당한 약을 행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했다.

기고

어느 대선 후보의 '개 식용 금지' 공약을 접하고



조경  
사단법인 가치보듬 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로 다가왔다. 최근 민주당 어느 대선 경선 후보가 일곱 가지 '동물·사람·자연 통합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개·고양이 식용 근절, 상업적 번식과 매매 제한, 학대 및 유기 근절, 지자체 동물 전담 부서 설치, 반려동물 문화교육. 공약의 핵심은 이러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이슈는 누가 봐도 '개 식용 근절'일 것이다. 물론 상업적 번식과 매매를 제한하여 유기동물 입양율이 95% 이상인 '티어하임'이 있는 독일처럼 생산·판매업의 제한이나 학대와 유기를 근절하겠다는 공약도 동물복지의 필수 과제지만, '개 식용'이라는 이슈를 공문화하여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대선 후보는 처음인 것 같다.

그동안 여러 정권의 대선 후보가 '개 식용 근절'을 쉽게 공약하지 못한 이유가 뭘였을까?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내세운 구실은 '국민적 합의'였다.

식용농장과 불법 개 농장이 많기로 유명한 경기도 내의 농장의 50%가 이미 폐업을 했거나 앞으로 폐업할 예정이라는 한 매체의 조사 결과를 본적이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개식용 시장인 성남 모란 개 시장이 5년의 진통 끝에 결국 철폐되었고 우리나라 3대 개 시장 중 하나인 부산의 개포 개 시장도 2019년 5월 철폐가 결정된 후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마지막 남은 대구 칠성 개 시장도 입구의 뜬장을 철거하고 대구시와 업종 전환 등의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면 개 식용 근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한 표 한 표 소중한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공약을 발표할 리도 없거니와 그것이 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철저한 계산의 근거야말로 개 식용 근절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그들이 방패로 삼아왔던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코로나19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인류의 필수적인 몸부림과 전 세계인의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동물 지옥으로 악명 높은 중국에서도 야생동물과 더불어 개 식용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1950년 홍콩을 필두로 최근에는 대만, 필리핀, 태국도 개 식용을 국가가 나서서 금지시켰고, 중국 선전시에 이어 인도 나갈란드 주의 '개고기 판매 및 수입·거래 금지'도 작년에 발표되어 전 세계인들의 환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을 회기 만료로 보란 듯이 사장시켰다

요즘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달콤한 미사여구에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당선 후 후보 시절 약속을 모르는 척 하는 정치인들의 공약 불이행은 정치권

의 바다 생태라는 것도 익숙하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정말 누군가의 공약이 당선 뒤 실제로 이행된다면, 개·고양이 식용이 법으로 금지되고 전국 무허가 농장들이 철폐의 수순을 밟게 되는 날이 현실로 오지 않을까, 하는 솔깃한 기대감이 드는 것은 필자 뿐 아니라 1500만 반려 동물 인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과 지금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의 지위의 불일치 속에 50년 넘게 법의 모호함을 틈타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잔인하고 참혹한 도살이 멈추는 날이 머지않아 올지도 모른다는 제법 신뢰 있는 희망이 생긴 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동물복지 과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후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를 바란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많은 국민들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고 있는 연간 13만 마리의 유기 동물 문제, 동물학대의 사각지대인 전국 280개소의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재정난으로 사료조사 주지 못하고 굶기는 사설 보호소에 대한 정부지원, 그리고 인간에게 버려져 도심 생태계에서 힘겹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고양이들과의 공생 방안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힘없는 생명들의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개 식용 근절과 번식·매매 제한, 동물 유기 근절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과감히 공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타난다면, 필자는 정치적 이념과 진영을 떠나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그것으로 나의 고단했던 동물권 운동 20년 눈물을 보상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국가 폭력에 의한 집단 트라우마 평생 간다

5·18 당시 경험했던 야만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생긴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가 폭력은 특히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은 물론 간접 경험자에게도 집단적으로 트라우마를 안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와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내놓은 연구용역 보고서는 국가 폭력에 의한 집단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연구 팀은 50명을 직접 피해자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5·18의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적 표준조사를 실시했다.

직접 피해자들의 경우 금전적 보상과 상관없이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거나 강화됐고 유가족들도 가족 해체 속에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장 대응인과 목격자 등 간접 피해자들도 참혹했던 경험을 떨쳐내지 못하고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5·18 당시 사진이나 영상을 접한 사후 노출 피해자들인데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도 생각보다 컸다는 점이다. 참혹한 장면을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접하게 되었는데도 충격을 받아 죄책감과 분노라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니 집단 트라우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가 폭력에 의한 집단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절실하다. 광주에 트라우마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이 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광주트라우마센터를 활용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 사후 노출 피해자까지 아우르는 집단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정치권은 지지부진한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 여파 실직 청년들 위한 대책 마련을

코로나19 장기화로 광주 지역 청년들이 직장을 잃거나 우울감(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엇그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시대의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광주 지역 만 19~39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코로나로 실직 경험에 있는 청년은 24.4%로 집계됐다. 실직 이유로는 권고사직·해고가 37.9%로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만료(18.7%) 자발적 퇴사(17.9%)가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한 기업 경영 악화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29.9%는 부채가 늘었으며 11.6%가 대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대출을 받은 청년 중 37.9%가 대출금을 생활비로 썼으며 34.0%는 주거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들이 주거·생계비까지

빛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청년 40%가 고독감을, 50%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가운데 13%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블루가 정신적 고통 차원을 넘어 청년들의 삶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물론 정부가 수차례 청년 실업 대책을 내놓거나 추진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심적 고통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의 문호를 넓히고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無等鼓

'제2의 이종범' 김도영이나? '제2의 선동열' 문동주나? '세기의 고민'으로 주목 받았던 KIA 타이거즈의 2022 신인 1차 지명은 김도영으로 결론이 났다. 동성고 유격수 김도영은 타격의 정확성과 파워 및 안정된 수비, 송구·주루 능력까지 갖춘 '5툴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진흥고 투수 문동주는 시속 156km의 빠른 볼에 제구

고도 정상급 선수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김현수는 최저연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신고선수'로 입단했고, 김선빈은 2차 6라운드에서, 양의지는 2차 8라운드에서 프로행의 막차를 탔다. 류현진은 고향 팀 SK의 지명을 받지 못해 한화에 입단했지만, 데뷔 시즌 투수 3관왕을 차지해 화제가 됐다.

'세기의 선택'

KIA가 1차 지명에서 투수 아닌 야수를 뽑은 것은 무려 18년 만이다. 이는 그만큼 현재 내야진 구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병호가 은퇴하고 안치홍이 팀을 떠난 뒤 1루수와 3루수는

팬들에게 '오희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1991년 해태는 진흥고 출신 투수 오희주를 책임질 선수가 필요했을 것이다. 김도영은 '제2의 이종범'이 아닌 선수 김도영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Z세대라는 당찬 자신감이다. 이종범은 입단 첫해에 해태를 우승으로 이끌고 한국 시리즈 MVP가 됐다. 김도영 역시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내년 데뷔 시즌부터 뛰어난 활약을 기대된다.

프로야구에서는 1차 지명을 받지 못하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